

SK엔무브, 열관리 등 신사업 추진... “전력 효율화 시장 선도”

‘ZIC’ 브랜드 데이

‘에너지 효율화 기업’ 정체성 강조
GRC 투자 등 액침냉각 기술 고도화
“전력 효율 증대, 미래 핵심 비즈니스”

“전기차 시대가 오면 ‘유탄유 사업이 괜찮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K엔무브의 성장이 멈출까요? (답은) 단호히 ‘아니오’입니다.”

박상규 SK엔무브 사장은 5일 서울 광진구 광진구 그랜드워커히에서 열린 ‘ZIC 브랜드 데이’에서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SK엔무브가 열어갈 ‘新유탄유 시장’ 선점을 자신했다. 박 사장은 “2040년 54조원으로 예상되는 전력 효율화 시장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도 약하기 위해 기존 유탄유 사업뿐 아니라 열관리 사업도 공략하겠다”며 ‘에너지 효율화(Energy Saving)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 전기차-내연기관 유탄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최근까지도 주요 정유사들이 실적부진을 겪는 중에도 유탄유의 견조한 수



박상규 SK엔무브 사장이 5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히에서 열린 ZIC Brand Day에서 ZIC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익성은 돋보인다. SK엔무브도 2009년 SK에너지에서 분사한 이후 ▲14년 연속 흑자 ▲지난해 매출 6조2000억원 ▲영업이익 1조원 ▲영업이익률 17%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5000억 이상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실적 효자’로 꼽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내연기관 수요가 꺾이면 유탄유 시장도 함께 저물어 가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박 사장은 “전기차 시대에는 유탄유 수요가 꺾일 것이라 보지만 이는



(왼쪽부터)엔진오일 ZIC 제품과 전기차용 유탄유 ZIC가 전기차 모형 안에서 구동되는 모습

/SK이노베이션

선부른 판단”이라며 시장의 예측을 전면 부인했다. 서상혁 e-Fluids 마케팅실장은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는 대신 가속을 가능하게 하는 ‘모터’와 감속을 제어하는 ‘기어박스’가 있다”며 “모터를 냉각하고 기어의 마찰저항을 줄여 ‘전비’를 향상시키는 전용 유탄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비는 내연기관의 연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통한다.

SK엔무브 측은 그룹III 유탄유 원료 경쟁력과 앞선 기술력을 통해 이미 전기차용 유탄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엔무브는 2013년부터

전기차용 유탄유를 개발해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료 경쟁력 역시 점유율 40%, 글로벌 1위 고급 유탄유인 그룹III를 통해 갖추고 있다.

◆ ‘액침냉각’ 기술로 열관리 시장 빠르게 공략

SK엔무브는 고급 유탄유 경쟁력과 연구·개발(R&D) 역량을 바탕으로 액침냉각과 열관리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자신했다.

‘액침냉각’이란 냉각유에 제품을 담가 냉각하는 차세대 열관리 기술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용 배터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열관리 기술이다.

SK엔무브 측은 열관리를 위한 액침냉각 시장이 2020년 1조원 미만에서 2040년 42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자체 추산 중이다. 이미 SK엔무브는 지난해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시스템 전문 기업인 미국 GRC에 2500만달러의 지분 투자하고, 미국 PC 제조 및 IT 솔루션 기업 델 테크놀로지스(Dell Technologies)와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박 사장은 “데이터센터의 경우 공기를 이용한 공랭식 대비 전력효율을 약 30% 이상 개선할 수 있다”며 “데이터센터 쪽에서는 냉각 시 소음 문제가 줄어든 것도 장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SK엔무브는 SK텔레콤에 액침냉각 제품을 공급하고 현재 데이터센터에서 실증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박 사장은 “향후 데이터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열관리를 통한 전력효율 증대가 미래 핵심 비즈니스 영역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모비스 “배터리 등 전동화 솔루션 강화... 유럽 수주 두배 목표”

IAA 모빌리티 2023

‘모비스 모빌리티 무브 2.0’ 소개
“유럽시장 年 평균 매출 30% 신장”

현대모비스는 유럽 최대 모터쇼인 독일 ‘IAA 모빌리티 2023’에서 유럽 시장 공략 키워드로 ‘전동화’를 내놨다.

현대모비스는 폭스바겐그룹에 대규모 배터리시스템 공급을 시작으로 올해 유럽 수주를 두배로 늘리고 오는 2030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연 평균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3’ 프레스데이 발표회에서 ‘MOBIS MOBILITY MOVE



현대모비스 글로벌 영업 담당인 악셀 마슈카 부사장이 4일(현지시간) 열린 독일 ‘IAA MOBILITY 2023’ 미디어 발표회에서 전동화, 커넥티비티 등 기술을 중심으로 한 유럽 모빌리티 시장 공략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을 주제로 유럽 시장 공략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에는 현대모비스가 배터리시스템과 PE시스템 등 전동화 핵심 부품을 필두로 차세대 사시 기

술과 커넥티비티 등 3대 솔루션으로 유럽 모빌리티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악셀 마슈카 현대모비스 글로벌 영업 담당 부사장은 “올해 유럽 지역 수주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연 평균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전시회 무대에 기아 EV9에 장착된 배터리시스템(BSA)과 PE시스템(Power Electric, 동력 전달시스템), 차세대 전동화 플랫폼인 e-CCPM(Electric Complete Chassis Platform Module)을 선보이며 전동화 경쟁력을 알렸다. 또 전동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전기차에 어울리는 800V 고전압 배터리시스템

과 3세대 PE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대모비스의 유럽 공략 솔루션에는 차세대 사시 기술과 커넥티비티 분야도 가세한다. 현대모비스는 ‘X(Everything)-By Wire’와 ‘5G 기반 V2X(Vehicle to Everything) 통합제어’ 기술로 유럽 모빌리티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레벨4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5G 기반 V2X 통합제어 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를 융합한 텔레매틱스 신제품을 조만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모비스의 올해 유럽 지역 수주 목표는 12억9000만달러(1조7000억원)다. 이는 지난해 실적보다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르노코리아자동차

‘패스트트랙 정비예약’ 도입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가 9월 새롭게 선보인 통합형 고객 경험 프로그램 르노 익스피리언스 ‘Value up(밸류업)’로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5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전국 400여개 르노코리아 서비스 네트워크 가운데 즉시 정비가 가능한 곳을 안내하는 ‘패스트트랙 정비예약’ 기능을 국내 완성차업계 최초로 도입한다.

고객의 현 위치에서 가깝거나, 최근 방문한 서비스 지점 가운데 2시간 내 정비가 가능한 곳을 ‘마이르노코리아’ 애플리케이션(앱)에 표시해 빠르게 정비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추석 연휴를 대비해 차량 엔진 및 미션 관리 특별 정비 할인 캠페인도 10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스탠바이미GO’ IFA 최고제품 평가

英·美 등 해외유력 매체 찬사

LG 스탠바이미 Go가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올해 IFA2023에서 해외 유력 매체에 최고 제품으로 평가받았다고 5일 밝혔다.

LG 스탠바이미 Go는 여행 가방을 닮은 케이스 안에 ▲화면 ▲스탠드 ▲스피커 ▲내장 배터리 등을 탑재한 일체형 제품이다. IFA2023으로 처음 유럽에 소개됐다.

영국 트러스티드리뷰는 LG스탠바이미Go를 ‘최고의 제품’에 선정했다.

/김재용 기자

IFA2023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제품이자 언제 어디서든 넷플릭스를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매우 흥미로운 캠핑 및 여행 장비라고 평가했다.

영국 포켄린트도 IFA2023 최고 제품으로 LG스탠바이미Go를 뽑았다. 놀랍도록 재미있다고 극찬했다.

그 밖에도 테크어드바이저와 스테프, 미국 뉴스위크와 포켓나우, 우버기즈모와 가젯매치 등이 최고 제품으로 LG스탠바이미Go를 올렸다. 미국 안코 디자인과 톱스가이드는 최고 디자인 제품으로도 지목했다.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에너지’ 기능성 입증

獨 매체 ETM 최고등급 ‘매우 좋음’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에너지가 차별화된 솔루션 기능으로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독일 평가 전문 매체 ETM에서 스마트싱스 에너지로 최고 등급 ‘매우 좋음’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ETM은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앱 사용성과 기능 및 성능, 구성 등을 평가해 총점 96.1점을 부여했다.

아울러 손쉽게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으면서 세탁과 건조, 세척 등 성능 저하도 거의 없다고 호평했다. 특히 쉽게 에너지를 추가로 절감해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에너지 시연 모습

주는 AI 절약 모드에 주목했다. 자체 테스트 결과 AI 절약 모드로 세탁기를 사용하면 에너지를 80.2% 적게 썼다고 확인했다. 세탁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세탁력은 유지된다고, 에코버블 기술도 재조명했다.

/김재용 기자

HJ중공업

보령신복합 1호기 공사 낙찰

HJ중공업이 5일 보령신복합 1호기 발전소 건설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석탄화력인 보령 5호기를 LNG복합발전으로 대체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2013년 인천복합 3호기로 이전해 비어있는 보령복합 4호기 부지인 충남 보령시 오천면 고죽국가 산업단지 내에 500MW급 복합화력 1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했고, 낙찰금액은 1864억원(VAT포함)이며 준공은 2026년 6월이다.

HJ중공업은 현재 신세종복합 발전소 및 강릉안인화력 발전소 건설공사를 시공 중이다.

/양성운 기자